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주일)

제1독서 : 이사 2, 1-5

제2독서 : 로마 10, 9-18

복 음 : 마태 28, 16-20

이 주일의 화답송

주님께서 그 정의

백성들 앞에서

밝히셨도다.

숲 정 이



아저씨(아줌마)도 성당 다닌대요?



양경배 신부 / 조촌동 성당

오늘은 전교주일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전파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날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다.

요사이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 교회의 모습도 참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음을 본다.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큰길에서 한 손에는 파켓을, 다른 한 손에는 휴대용 마이크를 들고 “예수 천당, 예수 천당”을 외치고 다니는 개신교 사람들, 그들을 보는 우리들의 시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신도 혹은 미친 사람들이라는 말로 평가절하를 했었다. 더 나아가 그런 선교방식은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하면서 무시하였다. 그러나 요즘 우리 신자들도 그들만큼은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였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간다는 무시무시한 구호는 외치지 못하지만 ‘천주교를 알려 드립니다. 천주교회! 어떤 종교인가?’라는 제목으로 리플렛과 책자를 만들어 가두선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참 좋은 일이다. 세상을 향한 복음의 외침은 신앙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각자에게 주어지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점도 있다.

가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신자들을 찾아가 기도를 드린다. 보통은 6인실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분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신자에게 성체를 모셔드리며 기도를 드린다. 기도가 다 끝났을 때 많은 경우 옆에 있는 다른 환자나 보호자들이 “아저씨(아줌마)도 성당 다닌대요?”하고 신자 환자에게 묻는 말을 듣는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나에

게 두 가지 의미로 들려왔다.

첫째는 의외의 눈빛이다. 더 정확하게는 비아냥거림이다. 왜냐하면 그 동안 병실에서 함께 지내면서 전혀 천주교신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신부와 수녀가 와서 기도를 하면서 본인의 종교가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더 많게는 평소에 병실에서 보여준 그 사람의 모습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거나,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아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교회와 교회 다닌다는 사람에 대한 실망에서 나오는 질문이다.

둘째는, ‘역시 그렇구나’ 하는 느낌이다. 헌데 이런 느낌은 거의 드물다. 평소에도 같은 병실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해심이 많은 것을 보면서 ‘뭔가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천주교 신자임을 알고서는 ‘천주교신자는 뭔가 다르지’라는 느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다.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전해야 한다. 모두가 해야 한다.

그런데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타인에 대한 복음 선포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복음이 나 자신에게 선포되고, 복음에 따라 내 삶이 차츰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탕이 된 선교활동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 넘는 엄청난 복음의 결실을 가져오리라 생각한다.

오늘 전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각자는 “아저씨(아줌마)도 성당 다닌대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나에게 질문을 하는지 한 번 돌아 봐야 할 것이다.

여 명

잃은 것을 찾아야...

모 보 일(즈가리아)

21세기 우리의 삶, 어떻게 달라질까. 새로운 '밀레니엄' (1천년)을 열, 21세기가 68일(대희년 61일) 앞으로 다가 왔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축제 분위기 속에 새천년맞이 준비에 바쁘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2천년대로 넘어가는 순간, 곧 1999년 12월 31일 밤 12시에 터뜨릴 샴페인 사재기가 한창이라는 소식이다.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세기였지만,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당시 세계는 발명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발명돼 더 이상 발명될 것이 없다고 단언했으며 그렇게 믿었다. 과학발전으로 지금과 같은 엄청난 변화는 상상하기 힘들었으리라.

자동차를 말(馬)보다 못한 것으로 여겨 유행하다 곧 사라질 진기한 물건쯤으로 취급했고, 비행기를 재미있는 장난감 정도로 여겼으니 그럴만도 하다. 20세기 중반을 넘어선 6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이 달에 착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생각했으니 짐작이 간다.

그런데 1백년이 채 되기도 전, 불과 수년 사이에 자동차와 비행기는 경쟁적으로 빠르기와 편리함으로 발전을 거듭해 생활안에 깊이 자리 잡았다. 달에 인간의 발자국을 남기는 쾌거도 이루어졌다. 이밖에 컴퓨터를 비롯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발명되고 발전시켜 삶의 패턴을 바꾸어 놓았다.

반면 잃은 것도 많다.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은 전쟁도구를 양산했다. 빨라진 자동차와 비행기는 군사적 가치를 제고시켰다.

무기가 만들어지면 써먹어야 한다.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과 월남전등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질병과 기아로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었다. 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극도의 개인주의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해 인류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21세기는 20세기에 비해 과학이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고 생활 패턴도 크게 달라질 것이 틀림 없다. 따라서 잃는 것 또한 많을 것이다.

인터넷 쪽지로 시공(時空) 없는 대화를 나누고 영상 휴대폰으로 경매에 응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가 열린다. 청소와 요리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에게 맡기고 설같은 연휴에는 가족과 함께 우주여행을 떠난다.

하느님 영역의 침범, 인간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생명 복제가 실현되고 말 것으로 추측된다. 인간과 기계가 결합하여 심장 등 인간의 모든 기관이 만들어 진다. 암과 에이즈가 퇴치된다. 수명 연장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인간의 잘못된 욕심과 그릇된 생각으로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려 다른 과학지식의 오·남용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오지나 않을까 두렵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최근 '생명복제기술합의회'의 '인간복제실험의 무조건 반대' 시민패널을 발표 했었다.

잃은 것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 집

국가 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1. 제정 배경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투옥하고 처벌할 목적으로 일제가 제정한 '치안유지법'이 그 원천인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공포되었다. 당시 상당수 의원들과 법무부장관 그리고 검찰총장도 이 법의 악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반대를 하였는데도 졸속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을 반대했던 이들은 이 법이 첫째,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둘째, 법의 성격 자체가 반민주적이며, 셋째, 법 집행기관의 자의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넷째, 장차 남북통일에 장애가 될 것이고 다섯째,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다른 처벌법규에 의해 대응이 가능하며 여섯째, 사상은 사상으로 대응해야지 법률에 의해 사상을 규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러한 반대 논거는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타당한 주장이다. 이처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유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오히려 더욱 개악되었으며, 제정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50여년 동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악법으로서 위력을 떨쳐왔다.

2. 운용실태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적용되고 운용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어느 정권에서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대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써 자의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법에 의해 처벌된 사건의 거의 전부는 반정부인사, 민주화운동을 해왔던 사람들과 진보적 출판인들 그리고 통일인사와 민주문화운동을 한 작가들이었다. 둘째, 이 법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정치적 필요와 그 행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해석 적용되었다. 평소에 일반서점에 진열되어 판매되는 책자를 특정인이 소지한 경우 이적 표현물 소지죄로 지목되어 구속기소가 되는가 하면, 북한을 방문한 인사들 중 정부가 묵인하는 자는 처벌되지 않는 반면 다른 언론인이 북한 취재계획을 세웠다는 것만으로 처벌되는 등의 사례는 이를 반증한다. 셋째,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전반적으로 불명확한 개념으로 가득차 있고 처벌규정에서 구성요건요소, 특히 처벌대상인 행위요소를 구체화하지 아니한 채 이를 법 집행자에게 위임하고 있는 백지형법의 형태를 취한 결과이다. 이런 논리는 북한이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3. 문제점(악법성)

첫째, 국가보안법은 위에서 본대로 전체적으로 불명확한 개념들로 가득차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둘째, 이 법은 처벌규정의 대부분이 그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익침해의 결과나 구체적 위험성마저 없는 경우에도 법에 규정된 행위만 있으면 처벌하는 추상적 위험범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셋째, 이 법은 이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 간첩죄 등과 중복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사실상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 넷째, 이 법은 생각과 사상자체를 처벌함으로써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다섯째, 이 법은 헌법이 천명한 평화통일을 가로 막는다.

4. 폐지운동의 당위성

대희년을 앞두고 민족의 화해를 가로막고, 사상의 표현 자체를 처벌하려는 이 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어떤 형태론든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민주적 기본 질서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하느님의 나라도 건설될 수 없을 것이다.

요심이 (1368) 김병오

반도체(半導體)를
세계최초로 우리나라
과학자가 개발



반도체(半導體)는 우리나라
과학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는데...



골프 우승기사는
칼라사진으로 크게
날마다 보도하는데...



반도체 기사는
흑백사진으로
조그만하게
보내고 있으니...



성이시돌제주피점

미시, 말쑥, 자연피점(한편), 한라산등반

때 : 11월 11일 ~ 14일, 19일 ~ 22일,

12월 26일 ~ 29일

장소 : 제주이시돌피점

(이시돌목장내)

문의 : (02) 773-1455, 755-3009

전 일 관 광

기쁘고 복된 대희년을 준비하시는
신부님, 수녀님, 교우 여러분께 하느
님의 축복을 빌며 뜻깊은 대희년을
맞아 2000년 1월중에 실시할 로마,
이스라엘 성지순례단을 모집합니다
☎ (0652) 288-6666

건 강 식 품 선 물 용 형 제 벌 꿀

- 아카시아꿀 2.4kg : 30,000원
 - 감화꿀 2.4kg : 25,000원
 - 화분(꽃가루) 1봉 : 35,000원
- 원가보다 싸게, 순수한 꿀입니다
주문예약 받습니다
상관성당 청소년부장 재 석(바오로)
박군자(소화 데레사)
☎ (0652) 282-5200

원진도어, 현관문 생산처

(고급현관문, 대문, 중문, 방화문)

노 승 현(스테파노)

배 일 순(아가다)

남원시 용정동 166(남원시 입구)

☎ (0671) 625-8338, 09633-8338

H P 011-659-6944

✦ 처음 시작과 같은 정성으로 ...

동전주 주유소(쌍용정유)

정품정량판매, 배달

황 연 목(요셉)

윤 성 자(수산나)

소양전안방면초입(우아동 파출소 옆)

☎ (0652) 245-5134, 5123

보석감정 · 디자인상담 무료

칸 보 석

- 미국보석학회 공인감정사(GG-GIA)
- 국가공인 보석감정사(AG-KOREA)
- 귀금속 공예전공

이 동 주(도비아)

박 영 실(헤레나)

서신 2지구 한빛은행 앞 제일상가

☎ (0652) 275-0076, 272-0076

농민의 소리

세계무역기구(WTO)차기 농산물 협상과 대책

가톨릭 농민회

새로운 세기를 맞는 현시점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걱정해야 할 문제는 단연코 농업의 문제이다. 이미 복讎의 우리 민족이 심각한 굶주림으로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볼 수 있듯이 식량안보를 걱정하지 않고 어찌 민족의 생존을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 민족의 생명줄인 농업·농촌의 위기는 우리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면한 경제불황의 극복에만 급급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 연말로 다가온 WTO차기 협상은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 농업기반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밀려 농산물 시장을 모두 개방하고 농업에 대한 보조를 감축해 나간다면 이는 몇몇 식량수출국과 곡물메이저들에게 우리 민족의 식량주권을 떠맡기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지난 UR협상 이후 우리의 농업은 실로 심각한 수준으로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지속적인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로 식량 자급율은 급격히 하락(쌀을 제외하면 약 5%)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에 대한 정부의 보조는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농지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농사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풍성한 곡식을 생산해내던 옥토들은 더욱 급격히 휴게소, 축사, 주유소, 여관 등으로 전용되고 말 것이다. 그나마 지난 UR협상 시에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관세 인하와 보조금 감축에서 우대조치를 받고,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피해도 높은 관세화 방식을 통해 그나마 줄일 수 있었다. 농업보호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이만큼이나 우리 농업여건을 유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차기 농산물 협상은 각종 보조금과 관세의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의 대응은 물론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미약한 형편이다.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주곡에 대한 자급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 국민은 연간 일인당 98kg의 쌀과 34kg의 밀을 소비하고 있다. 쌀은 정부수매의 지속적 감축과 수익성 악화로 논농사의 타 작목 전환을 부채질하면서 과잉생산에 따른 농산물의 가격파동을 구조화시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WTO차기협상에서 쌀의 관세화유예 연장이 안될 경우 논농사는 급격히 위축되고 말 것이다. 제2의 주식

인 밀의 경우는 어떠한가? 정부가 82년 밀수입을 자유화하고 84년 밀 수매를 중단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밀을 민간운동 차원에서 어렵게 살려내었으나 판매부진과 IMF경제환란으로 다시 우리밀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WTO 차기 농산물 협상에서 농업부문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와 쌀의 관세화 유예를 지켜내고, 과도한 관세감축을 저지해야 하며,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 - 식량안보, 환경보전, 국토유지관리, 홍수예방, 농촌사회안정 - 을 고려하여 각국의 주곡에 대해서는 식량주권을 인정하고 무역자유화의 원칙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하자는 포괄적 식량안보조항이 채택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차적으로 WTO농업협정에서 농가소득보장, 환경보전, 농업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를 쌀농사와 밀농사에 대해 전면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이미 대부분의 농업 선진국에서 가격지지제도의 폐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 확대해 가고 있다. 직접지불제가 시행되면 농민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그만큼 싼 가격에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UR협상 타결 6년이 지나서야 겨우 입안된 농림부의 논농사 직접지불제 계획이 예산당국의 거부로 실사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상 농림부의 논농사 직접지불제 실시계획(정보당 25만원)조차 매우 미흡하며 식량자급의 실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과천시나 공주시에서의 선례에서 보듯 지방정부차원에서도 환경보전과 조건불리지역 영세농지원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했듯이 농도인 우리 전북에서도 전라북도과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형편에 맞는 직접지불제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각 성당에서는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가 전개하고 있는 WTO차기협상대책및 쌀·밀농사 직접지불제 전면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자. 우리의 관심과 참여는 우리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일 콩나물 식품

농원에서 직접 무농약 재배하여 공장도
가격으로 공급함(무궁해, 아구렘, 동아콩나물)
양 동 혁(시몬베드로)
김 분 호(아 네 스)
농원 : 전주역 뒤 장제동 마을
☎ (0652) 242-6944
(휴) 011-679-6944

임실 동충하초 연구소

항중양 면역증강
허약체질 개선, 노화방지, 만성피로
암환자, 천식, 결핵, 황달, 당뇨, 고혈압
소장 김 형 권(필립보)
☎ 임실 (0673) 644-7334-5
전주 (0652) 213-4131-2

자동차보험 전문회사

LG화재총괄법인 대리점
(주)에이프러스원 전북사업본부
이 성 기(세베리노)
정 성 옥(리드비나)
서신동 천주교 신협 3층
☎ (0652) 251-3930-2

평화방송 TV ch 33

『세미사해설』비디오 테이프 출시
『세미사해설』의 전례에 의해 제작된 『세미사해설』
· 미사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 미사의 모든 공금증을 읽고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 가격 : 20,000원(우송료 포함)
- 구입문의 : 평화방송, 평화신문 영업국
☎ (02)2270-2541 FAX 2270-2549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해설(9)

제7절 :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668-682항)

김선태 신부/ 가톨릭 신학원 교리부

신앙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경의 제7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제7절의 내용을 소극적으로 대할 것이다. 사실 제7절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앙인이 깊이 의식해야 할 실로 중요한 신앙의 진리가 담겨 있다. 이런 사실은 초대교회가 신경의 제7절을 ‘희망의 복음’으로 여기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했던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그리로부터 오신다” : ‘그리로부터’는 성부 오른편을 가리킨다. ‘성부 오른 편’의 자리는 “하느님의 영광과 영예”(663항)를 가진 자리이다. 동시에 성부를 대신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진 자리이다(에페 1:20-22; 668항 참조). 따라서 신경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완성된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시간개념에 중요한 의미를 주는 내용이다. 우리의 시간은 무한히 마냥 흐르는 연속이 아니다. 주님의 재림때까지 유예된 한정된 시간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박하고 긴장감있게 살아간다. 깨어있는 삶을 살 수 밖에 없다(마태 25:12; 672항 참조). 깨어있는 삶은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나 나이 많은 노인만이 아니라, 본래부터 모든 사람에게 요구된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릴까? 누가 세상 역사의 끝을 기다리는가? 회의론자는 이를 기다릴 수 없다.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세상의 완성을 안중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기다린다. 이런 사람은 불의와 부조리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을 방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마냥 불의하게 흘러가는 세상의 역사가 마감되기를 노력한다. 자신의 그런 모든 노력으로 불가능할 때에, 그는 불의한 역사를 마감하고 세상을 완성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의 재림(671항 참조)을 간절히 기다린다. 주님의 재림이 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다(678항 참조). 하느님의 말씀에 철저

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고, 오히려 재림이 지연되기를 기대한다. 주님의 재림이 무서운 심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불의한 역사를 변화시킬 마음이 없고 ‘이대로가 좋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 재림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교회의 신경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신다고 대답한다. 모든 사람은 예외없이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때에는 각자의 행동과 마음속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678항).

주님의 심판은 먼저 모든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진리를 드러낸다.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진리가 지금까지 공평하게 선포되었는가? 이 진리가 힘없는 사람과 저항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큰소리로 그리고 절박하게 선포된 반면, 힘있는 자들에게는 매우 낮은 소리로 그리고 관대하게 선포되지 않았는가? 이 심판의 진리가 ‘총독들과 왕들’(마태 10:18 참조)에게 용기있게 선포된다면,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복음이 될 것이다.

나아가 주님의 심판은 신앙인에게 지금 여기에서의 책임의식을 일깨워준다. 심판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에는 그 악한 자가 분명하게 밝혀질’(2테살 2:8 참조) 뿐 아니라, 감추어진 모든 선행도 드러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21; 678항 참조).

이처럼, 신경의 제7절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직시하도록 초대한다. 지금은 하느님의 계획이 완성단계에 이른 “마지막 때”이다(1요한 2:18; 670항 참조). 임박한 재림 앞에서 “주여, 오소서!”(고린 16:22; 묵시 22, 17:20) 하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때이다. 제7절의 내용은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의 복음’으로 작용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님이 계시기에

성체조배로 모든 것을 길어냅니다.

이리저리 피어 있는 들꽃사이로 빨간 고추잠자리가 날아다니는

동혜원에서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송석모(다두)형제.

그는 성체조배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끄셨음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살아간다.

▶ 언제부터 성당에 다니셨는지요?

저는 부모님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곳 동혜원에 오기전까지는 인천에서 살면서 성당엘 열심히 다녔는데, 결혼을 하고 손을 댄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하고 몸도 안 좋아지면서 가정불화도 잦았지요. 그러다 보니 사는 것이 힘들어 냉담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 동혜원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느님을 다시 찾고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많이 마시던 술도 끊고 15년전 쯤에 아는 신부님의 소개를 받아 집사람과 함께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마음의 안정도 찾고 여러 가지 신앙서적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조상들은 '성경직해' 같은 책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지요. 그러면서 비로소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신앙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 언제부터 성체조배를 시작 하셨습니까?

5년전쯤에 교구에서 지속적인 성체조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동혜원에서는 수녀님과 제가 참석해서 교육을 받고 공소에서 수요일, 목요일에 철야 성체조배를 했지요. 그러다가 몇 년전에 이곳에 계신 작은 자매회의 수녀님들이 이곳 동혜원에서 40일간 사막피정을 하시면서 24시간 성체조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하루 한시간씩 성체조배를 하면서 기도에 맛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 성체조배를 하시면서 무엇이 변화되셨나요?

성경직해에 보면 사람에게 악을 불러오는 세가지는 '재산, 벼슬, 건강'이라고 써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는데 저도 한때는 이런 것을 추구했었지만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게서 물리쳐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철야 성체조배를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렇듯 오랜 세월을 준비시켜셨음을 깨달았을 때 너무 기뻐서 지난 세월의 상처와 모든 육체의 고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지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모두 수도성소로 불러주셨구요. 항상 주님 앞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바라는 것은 성체앞에서 기도와 성가로 주님을 찬미하며 사는 것 뿐입니다.

주식매매 및 신규투자상담

금융상품 · 뮤추얼펀드 · 채권
신탁 · 성당 자산 운용상담
차장 박 정 일(라우렌시오)
☎ (0652) 288-0011(대)
288-1252(直)
H · P 016-233-4668
(대우증권 전주지점 - 시청역)

코아입점
베네통

전 세계인의 하이캐주얼
이태리 정통 패션
배 월 자 (데레사)
김 정 자 (정혜 엘리사벳)
양 노 섭 (하상 바오로)
☎ (0652) 286-1181

중고자동차

신용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차중 위탁, 이전, 매입
동부 우회도로 모아자동차 단지내
전국자동차 매매상사
신 동 섭(바오로)
유 미 나(사비나)
H · P 011-683-3283/ 253-6636

생산직 사원 모집
현 대 본 차 이 나

모집인원 : 남자 ○영(교졸이상 병역필)
여자 ○영(교졸이상)
숙식제공 가능
무경험자 환영
왕궁온천 뒷편
☎ (0652) 291-8922



◆ 교구사제 연례피정

- 때 : 10월 25일(월)~29일(금)
- 장소 : 한티 피정의 집

◆ 교구사제양성후원 월레미사

- 때 : 10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가톨릭 센터

◆ 가톨릭 미술가협회 월모임

- 때 : 10월 25일(월) 오후 6시
(매월 넷째주 월요일)
- 장소 : 중앙성당
- 연락처 : 총무 지민수
017-656-1099

◆ 10월 익산 사랑의 다리 월레미사

- 사제피정 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 은혜의 밤 철야기도

- 때 : 10월 29일(금) 오후 11시
- 장소 : 전동 성당

◆ 선택 월모임

- 때 : 10월 30일(토) 오후 3시
- 장소 : 가톨릭 센터

◆ 레지오 소년단원 교육

- 때 : 10월 31일(주일)
- 장소 : 전동성당

◆ 혼인강좌

- 때 : 10월 31일(주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가톨릭 센터

◆ 가르멜 재속회 월피정 및

입회식과 창립미사

- 때 : 10월 24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 용머리성당
- 주례 : 이병호 주교님 주례로
미사가 있습니다

◆ 서양음악 연구학회 학술대회

(그레고리오성가 이론과 연주)

- 때 : 11월 6일(토) 오전 9시 30분
- 장소 : 서울 학술진흥재단 강당

· 학회문의 : (032) 340-3501

(가톨릭 대학교 음악과)

◆ 청소년 교육국 청년성서부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org.catholic.or.kr/ybible

◆ 전북대학교병원 병자사목

- 사무실 : 본관 2층

☎ (0652) 250-1336

- 미 사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분

- 장 소 : 병원 지하 세미나실

- 담 당 : 김치삼 신부, 이비비나 수녀

※ 가난한 병자들을 도우실 분은 교구
사랑의 다리 병자사목부를 후원해
주십시오.

◆ 103위 군인성당 건립 ARS

- 연락처 : (02) 700-0103

※ 한 통화의 전화에 2000원의
건축기금이 적립됩니다.

많은 후원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접속요금이 할인됩니다.

교구를 통해 Kamet에 가입하시면 단체
가입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존 사용자도
교구단체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월정요금 : 3,310원

- 교구 전산실 : (0652) 285-0041

한국통신 전주 전화국 :

(0652) 282-7299, 287-0200

FAX : 231-0115 (담당 이종성)

권 해 드 립 니 다

바람의 교향악

심종숙 율김/128면/4,500원
봄 여름 가을 겨울등 계절
과 함께 하는 아름답고 짧은
이야기들, 어른과 아이들이
편안하게 함께 읽으면서
꿈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

김요한/172면/5,300원

긍정적이고 복음적인 눈으
로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
는 눈을 키워준다. 매일의
삶속에서 진정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톨릭 인터넷 서점
바오로딸

10월1일에 개통된 가톨릭 인
터넷 서점 '바오로딸'은 교
회내의 모든 매체를 보급하
고 있다. 바오로딸, 열린, 성
바오로, 다솜에서 나온 책들
은 10%할인해준다.

http://www.pauline.or.kr

E-mail: paolo@pauline.or.kr

디스크 요통 치료기

서울 백병원 인제병원 2년 임상실험

결과 작용후 3일 이내 82%이상 호전

기존 허리벨트와는 전혀 다른

정형용 견인장치 「디스크 닥터」

김 종 진(스테파노)

다가동 복지성당 옆

창의 메디칼 ☎ (0652) 282-1610~1

동서로 삼익피아노

피아노, 전자오르간, 전자악기 전문

종합악기 판매장, 전자오르간 수리

김 태 우(알폰소)

황 진 숙(안젤라)

동서관동로 다가교 입구

☎ (0652) 288-7717~8

토탈 패션

I M A+

영캐주얼, 보세의류 전문 패션물

김 문 식(베드로)

심 점 순(데레사)

객사뒤 K.F.C 앞

☎ (0652) 231-7853

대 한 상 사

주택증개축 보수, 페인트 공사 전문

특수방수, 보일러설비, 샷수 도배

김 의 화(요셉)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62-39

☎ (0652) 252-4874, 야 (0652) 277-6522

호 출 : 012-684-2658

핸드폰 : 011-680-4874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 C-T촬영 · 일반X-선 촬영

골다공증 측정 · 전신초음파 촬영

유방촬영 · 성인병검진 · 자동차적성검사

박 인 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0652) 278-1212~3

세 광 당

금, 은, 보석, 시계

결혼예물 특별우대(상담환영)

김 윤 중(베드로)

박 명 자(마리아)

코아백화점내 1층

☎ (0652) 288-0058/285-3061

■ 임순남 · 무진장지구 본당소식 ■

도통동

주임신부 625-0091 사 무 실 631-0091 주임신부 서 석 회
F A X 633-0081 수 너 원 632-6916 사목회장 김 초 곤

1. 추! 선교 예술제 개최: 30일(토) 후 7시, 본당 야외무대 * 2000년 대회를 맞이하면서 지역 사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인, 이지역 주민, 외곽교우 잃은 형제와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은총의 시장 개설: 30일(토) 후 2시~후 5시, 어린이 미사 - 후 2시 * 학생(특전)미사 없음, 교우들에게는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담은 선물을 기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금주 모임: ① 12사도회 - 28일(목) 후 7시 ② 성인 복사회 - 31일(주일) 교중미사 후 ③ 전례부원 - 31일(주일) 저녁미사 후
 4. 교구사제피정: 25일(월)~29일(금) * 피정중인 사제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피정중 말씀의 전례 있음
 5. 건진 대상자 접수: 11월 14일(주일) 주교님 집전 * 대상자께서는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6. 성체 조배회원을 찾습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7. 저녁미사시간변경: 후 7시 30분→후 7시, 11월부터 - 내년 2월까지
 8. 금주 전례: 해설 - 조영희, 독서 - 김태주, 권양숙, 봉헌 - 오길영 부부
 9. 차주 전례: 해설 - 김초곤, 독서 - 김중익, 서정순, 봉헌 - 임순열 부부
- 지난주 봉헌금: 406,400원 □ 교무금: 737,000원

무 주

주임신부 322-2308 사 무 실 324-0555 주임신부 박 창 신
유치원 324-3555 수 너 원 322-2399 사목회장 김 원 태

1. 이 주일의 성서: 출애굽기 14장
 2. 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2차현금 있습니다
 3. 교구 사제 연례 피정: 25일(월)~29일(금)까지 * 이 기간은 말씀의 전례가 있습니다
 4. 성지 순례: 11월 3일, 한티 성지 * 접수 받습니다
 5. 주일을 소홀히 하는 교우에게 신앙의 대화를 나눕니다
 6. 여유(暇)가 없으면 제자리를 벗어나게 되고, 모든 관계가 파괴됩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일의 보람'도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참된 여유(暇)는 하느님 안에서 제자리를 보고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7.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은 일생을 좌우합니다
 8. 금주 전례: 해설 - 김원태, 독서, 기도 - 이두홍 부부
봉헌 - 김순득, 서영애
 9. 차주 전례: 해설 - 이명숙, 독서, 기도 - 문삼성, 서영애
봉헌 - 황야네스, 이승화
- 지난주 봉헌금: 274,900원 □ 교무금: 912,000원

쌍교동

주임신부 633-1004 사 무 실 633-4004 주임신부 박 중 신
유치원 633-4005 수 너 원 626-1004 사목회장 김 재 군

- 우리 본당은 ① 공부하는 신자 ② 감사하는 교우 ③ 기뻐하는 공동체
1. 주일학교 은총의 시장: 30일(토) 미사 - 후 3시
미사 후 - 은총의 시장이 있습니다 * 부모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2. 유아 세례: 30일(토) 후 2시 * 신청 바랍니다
3. 본당신자 전화번호로 제작합니다: 전화번호 변경된 신자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연락바랍니다
4. 교구 신부님 연례피정: 25일(월)~29일(금)
* 피정기간 신부님 들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5. 박중신(시몬) 신부님 영명축하식: 31일(주일) 교중미사 후
6. 미사 안내: 11월 2일부터 저녁미사 7시로 변경됩니다
7. 추! 혼인: 24일(오늘) 12시, 신랑 - 이우상(바오로), 신부 - 박미정
8. 금주 전례: 해설 - 이로렌조, 독서 - 이우치오, 김부시아
봉헌 - 최시문, 정안나

□ 지난주 봉헌금: 1,081,000원 □ 교무금: 1,396,000원

순 창

주임신부 653-1004 사 무 실 652-1004 주임신부 정 순 현
F A X 653-0414 수 너 원 653-3135 사목회장 박 건 용

- 오늘은 전교주일: 세계 선교를 위한 2차현금 있습니다
 1. 초동부 은총시장: 오늘 천호성지에서
 2. 교구 사제 연례 피정: 25일(월)~29일(금) *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울뜨레아: 25일(월) 5시 4. 꾸리아: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5. 오늘은 교무금 내는 날
 6. 성서교실: 29일(금) 요한 복음 11~17장
 7. 다음 주일(31일)은 본당의 날
 8. 감사헌금: 박인표 5만, 이경애 3만, 양동준 10만, 김업미 1만
 9. 금주 전례: 해설 - 오경순, 독서 - 임형락, 문혜정
봉헌 - 고현주, 정경순 부부, 청소 - 사랑하을 어머니 Pr.
 10. 차주 전례: 해설 - 안정임, 독서 - 최영록, 김경자
봉헌 - 이용곤, 박공순 부부, 청소 - 하늘의 문 Pr.
- 지난주 봉헌금: 453,910원 □ 교무금: 703,000원
- 목주기도: 본당 2,552만, 동계 1,530만, 쌍지 788만, 북쪽 180만

진 안

주임신부 433-0750 사 무 실 433-2541 수 너 원 433-1531 유 치 원 433-2293 주임신부 현 유 복 사목회장 허 인 석

- 교무금 납입이 매우 저조하오니 신자분들께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추수 감사제: 31일(주일) 전 10시 30분
* 농산물을 봉헌 하실 분이나 공소에서는 미리 사무실이나 수녀원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30일까지)
2. 사제 연수: 25일(월)~29일(금)
*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연수 기간동안 미사없고 말씀의 전례

오 수

주임신부 644-9386 사 무 실 642-6319 주임신부 김 불 숲
F A X 642-6319 사목회장 정 정 만

- 99년 오수는 ...
* 어르신을 공경하는 공동체 · 말씀과 몸으로 봉사하는 공동체
* 지역사회를 아끼는 공동체 · 함께 가요, 우리!
 - 이동목욕차량 복지서비스: 목욕수혜자, 자원봉사자, 재정후원자 모집(지로번호 7648931, 농협 511054-52-140174
국민은행 506-21-0098956, 우체국 400382-0072123-12
예금주 - 김불숲)
 1. 구역모임: 1구역 - 26일(화) 박순옥, 2구역 - 28일(목) 전홍배
오로사 2 사제 피정: 25일(월)~29일(금), 한티 피정의 집
* 평일미사 대신 말씀의 전례, 신부님을 위한 많은 기도 바랍니다
 3. 본당 제정을 위해 교무금을 월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무공해 비누, 밀치액젓 판매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5. 금주 전례: 해설 - 문판이, 독서 - 전홍배, 오로사
 6. 차주 전례: 해설 - 전홍배, 독서 - 김옥기, 문정희
- 지난주 봉헌금: 144,000원 □ 교무금: 170,000원

임 실

주임신부 643-3661 사 무 실 642-2164 주임신부 정 천 봉
F A X 642-2164 수 너 원 643-3660 사목회장 이 창 호

- 이 주간의 대하년 실천 사항: ① 이웃 및 직장 동료와의 계층간 간격 없애기 ② 민족화합, 통일 위해 목주기도 바치기
 - 오늘은 전교주일이며, 특별히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로 봉헌됩니다: 2차현금 있음
 1. 사제피정: 25일(월)~29일(금) * 화~금까지는 미사없이 말씀의 전례만 있음,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성지순례: 31일(주일), 대상 - 신영제자 출발 8시
* 7시 30분까지 성당으로 모여 주십시오
 3. 예비신자 교리: 매주일 미사 후 예비신자 인도에 전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4. 금주 전례: 해설 - 정용선(원지 베드로) 부부, 독서 - 최성수(베드로) 부부, 독서 - 송운학(안드레아) 부부
 5. 차주 전례: 해설 - 윤은자(세레나) 부부, 독서 - 이성태(요한) 부부, 독서 - 신태곤(야고보)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31,700원 □ 교무금: 80,000원

장 계

주임신부 353-0610 사 무 실 351-0111 주임신부 최 웅 준
F A X 351-0605 수 너 원 353-0611 사목회장 송 남 수

- 오늘은 전교주일 2차현금이 있습니다
 1. 금주 모임: 애병회, 자모회
 2. 교구사제 연례피정: 25일(월)~29일(금), 대구 한티 피정의 집
* 이 기간동안 말씀의 전례가 있습니다
 3. 본당의 날 및 추수감사미사: 다음 주일(31일) 공식미사 중
* 각 가정마다 예물을 미리 준비합니다
 4. 추! 혼인: 31일(주일) 12시 신랑 - 한현석, 신부 - 김영경(루시아)
 5. 여성분과 야외회: 11월 1일(월), 주왕산 국립공원, 회비 - 1만원, 중식은 본당에서 제공, 출발시간 - 당일 전 7시
 6. 본당 청소: 금주 - 병자의 구원 Pr., 차주 - 성모성심 Pr.
 7. 금주 전례: 독서 - 엄정선, 백은숙, 기도 - 신영자
봉헌 - 김종영 가정
 8. 차주 전례: 독서 - 김종배, 최희숙, 기도 - 김정자
봉헌 - 구경창 가정
- 지난주 봉헌금: 255,400원 □ 교무금: 120,000원

장 수

주임신부 351-8888 사 무 실 351-2264 주임신부 강 명 구
수 너 원 351-1228 사목회장 박 동 표

- 신앙을 기쁨으로 삼고 생활화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1. 환영합니다: 임순미(빈센시아)수녀님 수고하셨습니다
2. 범석규(마티아)신부님 특별강론: 11월 추수감사미사 중
3. 추수 감사미사: 31일(주일) 전 10시 30분
4. 공소 미사: 번암 - 후 7시 30분
5. 부녀회: 오늘 공식미사 후 6. 청년회: 29일(금) 후 7시 30분
7. 사제피정: 25일(월)~29일(금), 대구 한티 피정의 집
8. 짓길 판매: 밀치 액젓, 새우젓 * 사무실에 있습니다
9. 금주 전례: 해설 - 김미숙, 독서 - 정연수, 김옥순
봉헌 - 이승하 부부
10. 차주 전례: 해설 - 이지수, 독서 - 박충기, 이선미
봉헌 - 최문식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63,950원 □ 교무금: 350,000원

3. 성가 연습: 매주 금요일 후 7시 30분
*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성당 청소: 성조의 모후 * 수고해 주십시오

□ 지난주 봉헌금: 361,800원 □ 교무금: 696,000원

수고 있는 교우들에게 숭정이를 보냅니다.